유학생 확대의 조건, 이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선발 · 한국어교육 · 전공탐색 체계 손질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 3월 우리신문은 최근 4년간 우리학교 학부 외국인 유학생이 735명 감소하며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유학생에 편중된 유치구조와 입학 이후 교육체계의 한계도 함께 짚었다. 이후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선발과 교육체계를 손보고 있다. 이번 '유학생 확대의 조건' 연재 1회에서는 최근 달라진 유학생 교육 정책을 살펴본다. 2회에서는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대학 본부의 목표와 실제 학생을 교육하고 수용하는 단과대의 준비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일반 한국어 트랙	글로벌열린전공
입학	TOPIK 3급 이상	TOPIK 최저급수 없음[1]
1학기	TOPIK 4급 미만 → 학강 12학점·주 12시간	한국어 10학점·주 20시간 + 전공탐색
2학기	학강 종료 → 일반 전공·교양 수강	4급↑ → 전공·교양 수강 4급 미달 → 학강
2학년	기존 소속 학과에서 계속 수학	TOPIK 4급↑ → 희망전공 이동
졸업	TOPIK 4급↑	한국어트랙 졸업기준 적용

[1] TOPIK 성적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 필요.

중국인 유학생 비중 줄고 모집 국가 다변화 나선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유학생) 수는 ▲2021년 3,221명에서 ▲2026년 2,433명으로 5년 새 788명 감소했다.

우리학교는 2024년까지 외국인 학부생 수가 가장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고려대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국제처 글로벌입학팀 최창용 팀장은은 "2026년부터는 유학생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학알리미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1일 기준 88명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국가에 편중됐다는 국적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1년 전체 유학생 대비 중국인 학부 유학생은 77%에 달했지만 올해는 60.7%로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의 지표를 살펴봤을 때, 중국인 유학생이 537명 감소하는 사이 미얀마 유학생은 61명에서 217명, 몽골은 34명에서 76명, 우즈베키스탄은 67명에서 92명, 카자흐스탄은 18명에서 48명으로 늘었다.

글로벌입학팀은 내년에도 우수학생 선발과 모집 국가 다변화를 추진한다. 2027학년도부터 최상위 장학인 GES 장학을 신설하고 국가별 우수고교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한다.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미얀마 등에서도 우수학생을 유치해 일부 국가에 편중된 구조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면접 없애고 서류 100%로 학업·진로·공동체역량 함께 본다

내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부터는 새로운 선발 방식도 적용된다.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비예체능계열 외국인 신·편입학전형은 화상면접 전형으로만 진행됐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 면접은 폐지되고 비예체능계열 전 모집단위에 서류평가 100%가 적용된다.

평가요소는 ▲문화인(학업역량) ▲창조인(진로역량) ▲세계인(공동체역량)으로 나뉜다. 학업역량에서는 성적과 과목별 전공적합도, 언어능력을 평가한다. 진로역량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 동아리·대회·인턴·자격증 등을 토대로 전공에 대한 이해와 준비 정도를 살핀다. 출석과 추천서, 봉사활동 등은 공동체역량 평가에 활용한다.

글로벌입학팀에 따르면 서류평가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로 구성된다. 정량평가에서는 내신 성적과 한국어 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반영하고, 정성평가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여러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 팀장은 기존 면접 방식에 대해 "외국인들을 면접으로 평가하면 학생이 가진 역량보다 한국어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를 통해 성적 추이나 발전 가능성,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전형으로 선발된 첫 학생은 2027학년도 1학기에 입학할 예정이다.

10년 된 학강 손질 공통교재 · 운영주체 마련

다만 선발 방식이 바뀌어도 일반 한국어트랙 신입학의 한국어 기준은 TOPIK 3급 이상으로 유지된다.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TOPIK 3급에 해당하는 언어 수준은 '사회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 언어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의 학업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지난 3월 우리신문 관련 취재에서는 TOPIK 4급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도 수업을 들을 때는 AI나 번역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우리신문은 2023년부터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업역량강화과정(학강)이 입학 첫 학기에 그치고 공통된 교육 내용을 관리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학강은 TOPIK 4급 이상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자율전공학부가 학강의 교육과정 운영을 맡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방식은 국제처가 사실상의 운영을 맡고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강사 채용과 발령을 담당했다. 주무 부서가 명확치 않고, 지정된 공통 교재와 수업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자율전공학부는 올해 상반기 『학문적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했고 강사 워크숍을 통해 수업 내용과 교육방식을 공유하는 구조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보다 대학 학업에 필요한 '학문 목적 한국어'에 초점을 맞춘다. 학술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익히고 이를 읽기·쓰기·토론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자율전공학부 이정희 학부장은 "일반 목적 한국어와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는 다르다"며 학문적 텍스트를 이해하고 대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교재는 3급 수준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자율전공학부는 4급 수준의 후속 교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더 낮은 수준의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어 배우며 전공 찾는 1년 글로벌열린전공 첫 운영

학강 개편과 함께 올해 2학기 자율전공학부 글로벌열린전공도 첫 운영을 시작했다. 첫 모집에는 93명이 지원해 45명이 최종 등록했다. 글로벌열린전공은 입학 단계에서 특정 TOPIK 급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외국인 신입생이 1학년 동안 한국어교육과 전공탐색을 거쳐 2학년 이후 희망 전공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됐다.

학생들은 첫 학기에 한국어 전공기초 4개 과목을 총 10학점 이수한다. 첫 학기 이후 TOPIK 4급을 취득한 학생은 2학기 학강을 면제받고 관심 있는 전공·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4급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자율전공학부에 남아 요건을 갖춘 뒤 전공을 변경하거나 유학생 전용 글로벌비즈니스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년 전부터 제안된 유학생 교육체계 개선안과 맞닿아 있다. 2023년 우리신문 취재에서는 학강을 보완하고,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 신입생을 별도 교육단위에서 1년간 교육한 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면 전공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4년 외국인 유학생 TF에서도 언어교육과 전공 진입을 위한 기초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단위가 논의됐다.

별도 단과대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열린전공에서는 한국어 수준 진단과 집중교육, 전공탐색, TOPIK 4급 취득과 전공 진입을 1학년 과정 안에서 연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 학부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건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한국어도 같이 공부하는 1년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회차에서는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대학 본부의 목표와 실제 학생을 교육하고 수용하는 단과대의 준비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